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김형준
명지대 교양대학 교수(정치학)

지난달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를 맞이했다. 현 집권 세력은 입만 열면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한다. 이 정신의 핵심은 ‘사회적 약자 곁에 함께 있는 것’일 터이다.

노 전 대통령이 꿈꾼 것은 ‘사람 사는 세상’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었다.

그런데 최근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펼쳐는 언행을 보면 ‘겉피계 노무현 정신’만 판을 치고 있는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가족 비리와 ‘갑질 무마’ 의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장관에게 “마음의 빛을 쬐다”고 했다.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강욱의원(열린민주당비례대표)에게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세 가지 다른 점

는 축하 전화를 걸어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역할’을 당부했다.

평소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각별했던 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정의기억연대 운영에 참여하면서 불거진 각종 논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최근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이라도 만들라”고 엄포를 놓자 정부는 네 시간 만에 “법을 만들겠다”고 기만하게 대응했다. 총선 압승으로 권력을 도취된 여권이 보수 몰락 이후 상식 밖의 ‘친문 사는 세상’ ‘특권과 차별이 있는 세상’ ‘상식이 통하는 않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씁쓸하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은 국회법에도 없는 ‘4+1 연대’를 통해 제1야당을 배제한 채 누더기 선거법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관철시켰다. 그 후에 각종 핍수와 편법으로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만들고 총선 후에 통합했다. 민주당은 총선에서 전례 없는 압승을 거두었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이 평소 가장 싫어했던 ‘원칙 없는 승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친여 세력은 종종 문재인 정부를 ‘노무현 정부 2기’라고 평가한다. 그런데 노·문 정부의 뿌리는 같지만 정치 열매는

전혀 다르다.

첫째, 노무현 정부는 ‘실용적 진보’를 표방했던 반면 문재인 정부는 ‘교조적 진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은 진보 세력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나는 좌파 신자유주의자’라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관철시켰다. 이라크 파병과 제주 해군기지 건설도 밀어붙였다. 이 모든 것이 이념을 넘어 국익을 위한 실용적 행보였다. 반면 문재인 정부는 친문과 운동권 세력을 중심으로 이념 과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주류 세력 교체와 체제 변혁을 핵심 목표로 삼으면서 ‘토착 예구’ 등 이념으로 가득 찬 구호만 남부했다.

둘째, 노무현 정부에서는 ‘협치 실천’이 돋보였던 반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협치 절벽’이 지배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은 2006년 4월 사학법 개정으로 정국이 경색되자 청와대로 초대한 여당 원내대표에게 “야당 원내대표하기 힘든데 양보 좀 하시죠”라면서 통 큰 정치를 주문했다. 2005년 8월엔 한나라당과의 대연정을 제안하기도 했다. “필요하다면 권력을 통째로 내놓겠다”고도 했다.

177석의 슈퍼 여당인 민주당은 53년 만에 21대 국회를 사실상 단독 개원했

고, 그동안 야당 몫으로 지정된 국회 법사위원장마저 차지하겠다면서 원 구성을 지연시켰다. 하지만 양보는 힘없는 야당이 아니라 권력을 가진 여당이 하는 것이 상식이다. 야당을 적폐 세력으로 몰아가고 진영의 논리에 갇혀 선과 악의 이분법적인 대결 구도가 만들어지면 협치와 공존의 정치는 불가능해진다.

셋째, 노 전 대통령은 국정 운영의 핵심 원리로 당·정 분리를 강조했다. 따라서 청와대와 집권당 간에 수평적인 관계가 구축되면서 결속한 권력이 만들어졌다. 반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당·정 일치 가 강조되면서 청와대가 집권당을 수직·통치하는 것이 일상화됐다. 심지어 여당 지도부는 강제 당론을 통해 의원들을 거수기로 만들고 있다. 정당 민주화는 퇴보하고 대신 오만한 권력이 꿈틀거리고 있다.

정부 여당은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코로나 국난 극복의 생산적 정치를 위해 ‘실용 강화 원칙과 상식’ ‘행동하는 협치’ ‘당정 분리’라는 ‘노무현 국정 운영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단연관대 국정 안정은 국회 의석수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그것은 집권 세력의 제도적 장애와 관용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社說

‘전남 관광’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준비하자

코로나19가 수도권권을 중심으로 여전히 기세를 부리지 정부가 비수기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특별여행주간을 계획보다 2주 줄이기로 했다. 당초에는 위축된 국내 관광을 살리기 위해 특별여행주간을 6월 20일부터 7월19일까지 4주 동안으로 예고했지만 수도권발 코로나19 확산에 2주 늦추고 기간도 2주 줄여 7월 1일부터 19일까지로 조정된 것이다.

이처럼 특별여행주간이 축소됨에 따라 그 불뚱이 전남 자치단체에까지 튀고 있다. 전남도를 비롯해 22개 시·군은 코로나나 청정 지역을 내세워 특별여행주간에 관광객들을 대거 유치할 계획을 세웠다가 이제 전략을 수정할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이미 코로나19로 인해 봄 축제가 취소되거나 연기된 가운데 전남의 지자체들은 완도 청산도 밤마실축제나 진도의 진수성찬·토요 인속여행, 목포의 항구버스킹 등을 준비하면서 대대적인 마케팅을 계획했다. 하지만 이런 준비와 노력이 여

해 중간 축소로 빛이 바래게 됐다.

그렇다고 아직 실망하긴 이르다. 지금부터 코로나19 이후에 대비해 관광객 유치 전략을 더욱 꼼꼼하게 짜면 된다. 코로나19로 올해는 해외여행이 사실상 불가능해 여름휴가 등 여행 수요가 국내로 몰릴 수밖에 없다. 전남은 무엇보다도 코로나 청정 지역이란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 타 지역에 비해 경쟁력이 있다. 여행이 재개되더라도 생활 속 거리 두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전남의 섬과 바다 그리고 숲은 코로나 시대 여행 패턴에도 딱 맞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순천만정원과 여수엑스포해양공원 등 기존 동부권 유명 관광지에도 목포 해상케이블카와 진도 솔비치 등 서부권 관광지가 뜨고 있어 여행이 재개되면 전남 관광은 최대 수혜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청정 전남’ 이미지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 나가야 할 것이다.

‘문화중심도시 조성위’에 거는 기대 크다

제8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조성위)가 출범해 광주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8기 조성위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을 토대로 문화체육관광부 박양우 장관 등 당원적 위원 14명과 민간 위촉 위원 15명 등 모두 29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에 신규 위촉된 민간 위원 가운데 정동태(전 문화관광부 장관) 위원장과 송진희(호남대 교수) 부위원장을 비롯해 민간위원 8명이 지역 문화계 인사와 대학 교수여서 이들의 활동에 거는 기대가 자못 크다. 광주 지역과 연고가 있는 민간 위촉 8명은 역대 가장 많은 숫자다. 이들은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직접·간접적으로 관여했거나 잘 알고 있는 인사들로 평가된다. 대표적으로 정 위원장은 장관 시절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청사진을 그린 바 있다.

조성위의 업무가 문화중심도시 조성사

업의 기본 방향과 제도, 종합계획 수립·변경 등 주요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때문에 지역 참여 인사들의 역할은 막중하다. 조성위가 시급하게 책정해야 할 현안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활성화다. 5년째 지속되고 있는 직무대행 체제와 이원화한 운영 체제를 포함한 각종 현안이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문화전당 운영 효과를 도시 전역으로 확산하기 위한 5대 문화권 연계 문화도시 기반 조성사업도 지지부진하다.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과 예술진흥 및 문화 관광산업 육성 등 분야는 최근 3년 국비 반영률이 45%대로 저조하다.

따라서 조성위는 광주의 미래를 담보하고 있는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제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아울러 문화중심도시의 현안과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해 문화도시 광주의 비전을 앞당겨야 할 것이다.

無等鼓

탈북자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기사가 일주일 이상 은·오프 라인 뉴스를 달구면서 때아닌 베라 공방이 일고 있다. 베라는 전단이나 벽보 등을 뜻하는 빌(bill)의 일본어 ‘비라’(ビラ)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생겨난 말로 알려져 있다. 일제강점기와 주로 ‘전단지’라는 뜻으로 쓰였지만 6·25전쟁을 기점으로 심리전에 사용된 전단지를 가리키는 단어가 됐다.

베라가 처음 대량으로 뿌려진 것은 2차 세계대전 때다. 당시 미군은 엄청난 양의 전단지를 일본 곳곳에

와 자유 보장, 직업·직장 알선, 고급주택 무상 배정, 생활보장금 1억1천 1백만 원·3억3천3백만 원(남한 돈으로), 상금 185억 원까지(남한 돈으로)”라고 적혀 있다.

탈북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로 남북 관계가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 여기에 북한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맹비난을 놓고도 여·야가 입장 차를 보이는 등 사회 곳곳에서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정치적인 선행과 이해관계가 작용했겠지만 어찌 됐든 아직까지도 베라의 효과가 확실하다는 데 놀랄 따름이다. /재희총 사회부장 chae@

베라

탈북자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기사가 일주일 이상 은·오프 라인 뉴스를 달구면서 때아닌 베라 공방이 일고 있다. 베라는 전단이나 벽보 등을 뜻하는 빌(bill)의 일본어 ‘비라’(ビラ)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생겨난 말로 알려져 있다. 일제강점기와 주로 ‘전단지’라는 뜻으로 쓰였지만 6·25전쟁을 기점으로 심리전에 사용된 전단지를 가리키는 단어가 됐다.

베라가 처음 대량으로 뿌려진 것은 2차 세계대전 때다. 당시 미군은 엄청난 양의 전단지를 일본 곳곳에

종교칼럼

행복

그것으로 정말 행복할까?

한 지인으로부터 들었던 그의 아내와의 일화가 떠오른다. 부인이 명품 가방 하나 잃으면 행복하기 그지없겠다고 하소연 하니, 지인은 부담스럽지만 큰마음 먹고 비싼 가방 하나를 구입해 아내에게 선물했다고 한다. 아내는 그가방을 받고 좋아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아내가 지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아니, 가방만 명품이면 뭐 해. 그에 맞는 옷과 하이힐이 있어야지!” 씁쓸한 표정을 지었던 지인의 얼굴이 떠오른다. 과연 지인의 아내는 가방에 맞는 옷과 하이힐을 맞춰줬을 때, 정말 행복하다고 말할까 궁급하다.

행복의 사전적 의미는 ‘복된 좋은 운수’,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함, 또는 그러한 상태’다.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이라며, 행복의 가치가 어디에 있다가 무었을 소유한다고 해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것이 아닐까. 잠깐의 만족감과 기쁨을 느낄 수는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어디’라는 장소와 ‘무엇’이라는 소유는 영원할 수 없고 감각에 얽매어 있기 때문이다. 감각에 스스로가 속아 넘어간 것이

기 때문이다. 감각으로 느끼는 행복감, 곧 감각을 통해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것은 좋다. 그러나 ‘행복’이라는 엄청난 삶의 가능성과 원동력을 주는 단어를 소극적으로 생각하고 싶지 않다.

필자가 6년 동안 칠레의 빈민가에서 선교사로 살면서, ‘어디’에 있고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꼭 행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님을 배웠다. 우리 돈 천 원이 안되는 칠레 화폐 500페소로 한 가족이 하루 먹을 빵을 구입할 수 있다. 빈민가의 삶은 지저분한 동네와 가진 것이 없는 아주 작은 삶이었다. 그러나 그 빵을 나누어 먹으면서도 항상 집안은 웃음이 끊이지 않았던 칠레 빈민가였다. 이들은 ‘행복하다. 행복하지 않다’라고 말하지 않았다. 일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고, 또 풍성하지는 않지만 소소한 것에 감사하고 또 그것을 나누면서 만족해 할 뿐이다.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가톨릭사회복지회로 발령 받기 전 영암 신봉성당에서 사목 활동을 할 때였다. 2018년 12월 초,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400포기의 배추를 김

장했다. 감장을 위한 배추와 양념을 기부받거나 신자들 집에서 조금씩 성당으로 가져 오셔서 김치를 담갔다. 정성스럽게 담긴 김치를 아이스박스에 담으니 200여 개 정도가 되었다. 가톨릭사회복지회에 박스를 전달했다. 며칠 후 20여 박스의 김장 김치가 여러 시설에 배달되었다고 연락이 왔다. 미혼모의 집, 지역아동센터, 카리타스 근로 시설 등등. 이 소식을 감장할 때 수고했던 어르신들에게 알려 드렸다.

이때 여든 가까이 되신 어르신께서 하셨던 말씀이 떠오른다. “내가 살면서 이렇게 마음이 뜨겁고 행복했던 적이 없어라. 아따! 신부님 좋소야!” 당신은 나이가 많아 남을 도울 수 없을 거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당신이 직접 만든 김치가 그렇게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었다는 것에 감동하신 것이다.

이것이 참된 행복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행복은 어디에 있고 무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닐까.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마태오 복음 5장 3절의 말씀의 뜻을 묵상해 본다.

기고

농업·농촌·농업인, 그리고 국민과 함께

특 대비 농가 소득 비율은 65%로 96% 수준이었던 1995년에 비해 대폭 하락했을 뿐만 아니라, 2019년 농가 평균 농업 소득은 1026만 원으로 1995년의 1046만 원보다도 못하다. 농가 인구는 90년대 이후 매년 3.7%씩 감소하고, 농가 고령화율은 44.7%로 우리나라 국민 고령화율의 3배 수준이다. 교육, 문화, 여가, 보건, 복지, 정주 생활 등 농촌 마을의 열악한 인프라는 젊은 사람이 농촌을 떠나게 만들고 있다. 최근 불철 저운 현상과 여름철 고온과 가뭄, 가을철 태풍, 따뜻한 겨울 날씨 등 예측 불가능한 기후 변화는 농업인의 농작물 생산과 소득 지지에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다.

위기는 기회와 함께 찾아오곤 한다. 농업과 농촌이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환경과 생태계를 보전하며 여가와 휴식처를 제공하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데 공감하는 국민의 비율이 2010년 55.9%에서 2018년 72.2%로 증가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국민 경제에서 농업이 중요해졌다고 생각하는 도시민의 비율은 67.6%로 매우 높다. 정부는 생산 중심의 기존 농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한 농정으로 틀을 전환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은 디지털 혁신을 통해 미래 농업

과 농촌의 새로운 모습을 그려볼 수 있게 만들었다.

새로운 변화를 기회로 포착하고 농협도 지난 10월 11일 ‘농업이 대우받고 농촌이 희망이며 농업인이 존경받는 함께하는 100년 농협’이라는 ‘비전 2025’를 선포했다.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공익적 가치를 지닌 농업이 대우받고, 비즈니스 기회와 살기 좋은 정주 여건을 갖춰 농촌에 희망을 불어넣는 한편, 경쟁력 있는 농업을 이끌어 국민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는 농업인이 가득한 ‘농토피아’(農Topia)를 농업이 추구하는 농업·농촌의 미래상으로 설정했다. 그리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이며 내실 있는 성장 의지를 불어넣어 지속 가능한 협동조합으로서 농업이 농업, 농촌, 농업인, 국민 모두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농촌과 도시의 조화, 농업인과 소비자의 상생, 사람과 환경의 공존, 지역사회 공동체 간 협력, 계층 및 지역 간 균형, 공공 및 취약 계층을 배려하는 포용과 상생의 가치를 국민과 함께 추구해 나가고자 한다.

비전은 다섯 가지 핵심 가치를 통해 실현해 나간다. 첫째, 유통 개혁을 통해 소비자에게는 더 안전한 먹거리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하고 농업인에게는 더

많은 소득을 제공한다. 둘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디지털 혁신으로 농업과 농촌의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한다. 셋째, 농업인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업 경쟁력을 높인다. 넷째, 살고 싶은 농촌을 구현하기 위해 지역 사회와 적극 협력하며, 마지막으로 농업인과 국민에게 신뢰받는 농협을 구현하기 위해 농협의 정체성을 확립한다. 이 다섯 가지 핵심 가치를 최우선에 두고 농협의 모든 사업 역량을 한데 집중할 계획이다. 전남 농협도 지자체와 함께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 아열대 작물 신소득 작목 발굴, 새정부 품종 전담 대표 쌀 품종으로 육성 등 새로운 비전에 맞춘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

빨리 가려먼 흔자 가고, 멀리 가려먼 함께 가라고 했다. 농협의 새로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 유관기관, 기업체 등 농업과 관계 있는 모든 분들의 도움과 지원이 절실하다. 그 무엇보다도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응원이다. 국민 1인당 GDP 3만 불 시대를 열기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희생했던 농업과 농촌, 농업인의 아픔에 공감하고 앞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더 많은 격려와 지지를 보내 주면 더 할 나위 없이 고맙겠다.



김석기
농협 전남지역본부장

“농업과 함께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가 만들어져 왔고, 또 오늘 우리가 누리는 대한민국 발전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농민의 꿈이 대한민국의 아들과 딸을 키웠습니다. 마침내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로 오기까지 농촌의 헌신이 무척 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8년 12월 청와대로 농업인들을 초청해 간담회에서 발언한 내용이다. 대통령의 말 그대로 해방, 6·25, 남북 분단을 겪은 대한민국은 전 세계 최빈국에서 지난해 GDP기준 세계 13위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다. 그 과정에 국민들에게 먹거리를 공급하며 281조 원의 유익한 공익적 기능을 제공해 온 농업이 든든하게 자리하고 있었다.

하지만 농업과 농촌은 급속한 경제 성장의 그림자에 가려 소외된 채 커다란 위기에 놓였다. 2018년 도시 근로자 소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기사·지국) 국내 신청·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에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